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2014. 11

충현의 만나

Manna of Choonghyun

매일묵상 Q.T.
이사야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Galatians 2:20)

Contents

- 2 11월 일정표
- 4 매일묵상 사용 안내
- 6 기도제목표
- 7 매일묵상 Q.T.
- 59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G.B.S.)

『충현의 만나』는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Q.T. 교재입니다.

11

November 2014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새벽 상한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홍수감사주일 홍수감사일 휴일(명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교회 주요 일정

11월 2일

제7차 성찬식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11월, 개인 전도 계획

12

Dec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충현의 만나 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 묵상하도록 매달 발행되는 Q.T.(Quite Time) 소책자이다. 충현의 만남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의 본문을 볼 수 있도록 편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동안 매일 성경을 1장씩 묵상하던 방식이 지금은 17절 내외로 정한 본문을 지면에 함께 실어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에 충현의 만남 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묵상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1. 첫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제목을 정하라

우선 본문을 읽은 후, 본문이 말하는 주제를 선명하게 포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각 문단의 핵심단어나 구절을 찾아 표시하고 본문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제목을 만들거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본문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알 수 있다. 충현의 만나 매일묵상은 2쪽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좌측 상단의 날짜 옆에 본문의 전체 주제가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제목으로 달아 놓았다. 본문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제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묵상하는 중에 본문의 주제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스스로 제목을 만들어 빈칸에 적어보는 것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라

본문을 쓴 인간 저자는 어떤 사람인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왜 기록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정보는 성경 본문 안에서 주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 각 권의 개요를 설명한 책이나, 성경 사전, 혹은 도서관에서 주석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피하는 게 좋다. 많은 사이버, 이단들이 자신들의 블로그 등에 이단 교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신학과 맞지 않는 해설을 퍼 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본문의 의미를 구체화 하라(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밝히라)

본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등장인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우리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2.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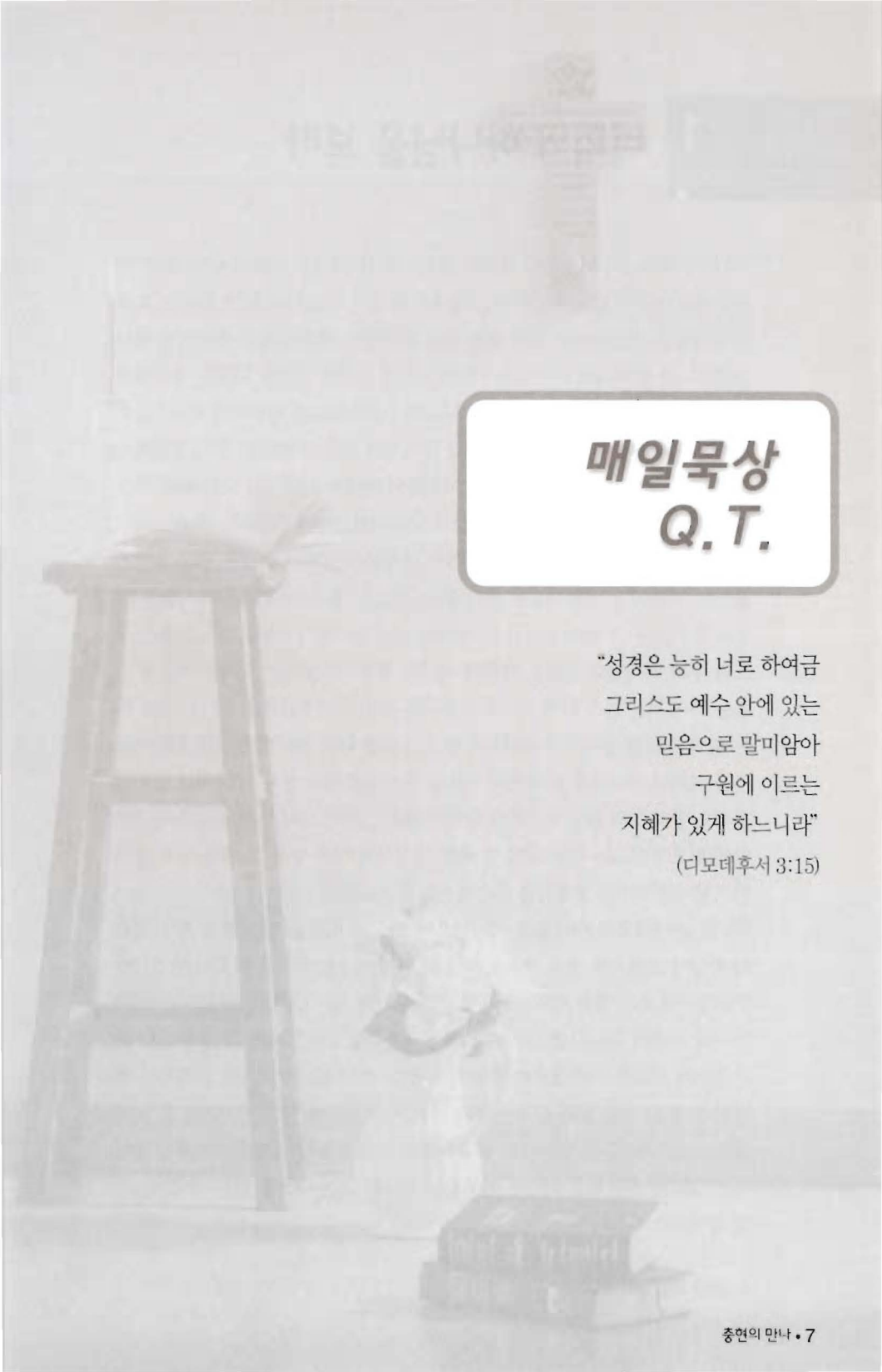
말씀을 묵상한 뒤,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 다음의 몇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버리고 옛 생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
 내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라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라
 가까운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으로 점검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 보려 한다면 실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채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2:2~3).

- ① 충청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② 김동하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십자가만 붙들게 하소서.
- ③ 충청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이루는 은혜를 베푸소서.
- ④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온충을 베푸소서.
- ⑤ 충현의 교회학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전국일꾼이 되게 하소서.
- ⑥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⑦ 1년 1인 1명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 및 해당 교구 전도와 동역 교회 전도 지원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 ⑧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⑨ 충청교회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양로원, 가평·함양농원 개발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매일묵상 Q.T.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했고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로 하늘을 잣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떨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1) 섬들을 티끌 같이 드시나니

본문 이사야 40:1~17 찬송가 304장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1~11절)

이사야는 이사야서 1~35장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앗수르에 대해 예언했고, 36~39장에서는 앗수르의 폐망과 바벨론의 강세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40~55장까지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다(1~8절). 따라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9절, 눅 3:4 요 1:23 참조)과 그것을 듣는 자들은 여호와와 오심을 고대하며 그 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9~11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요 1:29~3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12~17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민족들(열방)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17절).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 안의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일 뿐입니다(15절).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12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 그 누구와 의논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13~14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Q.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세상이 주는 위로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를 먼저 바라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②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황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③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④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⑥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⑦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⑧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⑨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⑩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⑪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⑫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⑬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⑭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⑮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거 같이 만들 것이라 ⑯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1~7절)

당시 유다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의 패배로 여겼습니다(사 36:18~20 참조). 하나님은 이러한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힌 나라들을 자신의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1절).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태초부터 역사를 주관해 왔는지를 물으십니다(2~4절). 이 질문에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서 연합하여 대책을 세우는데, 그들의 방책은 새 우상을 세워서 자신들에게 임할 재난을 피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5~7절).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8~16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스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과 야곱을 지명하신 일을 상기 시키셨습니다(8절). '나의 종'이라는 호칭에는 이스라엘이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신뢰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9절).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10~16절). 그리고 종으로서 실패한 그들을 다시 불려 진정한 구속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14절).

Q.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까?

Q.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기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은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 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17~20절)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놓인 거친 광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는 하나님이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며(17~18절), 광야를 동산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합니다(19~20절).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17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히 13:5~6).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광야와 같은 거친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자(21~29절)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살아 계시는 유일한 신입니다(21절).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22~24절).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Q. 혹시 완전히 떨치지 못한 미신적인 생각이나 생활 습관이 있습니까?

Q.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쳐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이다 “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1~4절)

하나님이 하시려는 새 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불드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1~4절). 본문에 나오는 종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넘어 열방의 구원을 위한 사역으로 확장되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18~21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 인용됩니다. 여호와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온유와 겸손과 진실한 공의로 행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2~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5~13절)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영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종을 부르셨습니다(5절). 그 종은 하나님이 의로 부르신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백성의 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6절).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7절).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은 그를 그들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종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Q.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맹인들이 밝히 보라

¹⁴⁴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험덱일 것이라 ¹⁴⁵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¹⁴⁶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¹⁴⁷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¹⁴⁸너희 못 듣는 자들이 들으라 너희 맹인들이 밝히 보라 ¹⁴⁹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 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¹⁵⁰내게 충성된 자 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 같이 맹인이겠느냐 ¹⁵¹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¹⁵²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¹⁵³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¹⁵⁴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¹⁵⁵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들겠느냐 ¹⁵⁶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악탈지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¹⁵⁷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¹⁵⁸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뚝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14~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상실하셨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완전히 잊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임산부에 견주시며 자기의 백성을 곧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14절). 그 때에는 이스라엘이 비록 눈먼 소경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15~1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언제 될 것이지만 그 때까지 우상을 의지하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18~25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탈취를 당하였습니다(20~22절). 그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탄원을 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18~19절).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Q.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Q. 매일,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¹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²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³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⁵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⁶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⁷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⁹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¹⁰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¹¹ “2)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1절). 따라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위협이 다가오든지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2절).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2~3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요 3:16 마 28:2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8~13절)

열방과 민족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의 증인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십니다(8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9~10절).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입니다(12절). 이스라엘은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Q.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¹⁴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¹⁴⁵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¹⁴⁶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¹⁴⁷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¹⁴⁸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저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¹⁴⁹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¹⁵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¹⁵¹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¹⁵²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¹⁵³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¹⁵⁴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¹⁵⁵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¹⁵⁶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¹⁵⁷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¹⁵⁸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¹⁵⁹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¹⁶⁰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¹⁶¹ 그러므로 내가 ¹⁶²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 거리가 되게 ¹⁶³ 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14~21절)

옛적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실 때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광야에 길을 여십니다(14~18절). 이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이제는 사막에 강을 내어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20절).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십니다(19절).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새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21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22~28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번제의 양과 향품과 희생의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23~24절).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25절). 인간이 만들어 내는 의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22, 24절).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Q. 인간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¹⁾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늦문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꺾고²⁾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³⁾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때를 동일 것ियो⁵⁾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⁶⁾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⁷⁾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물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⁸⁾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⁹⁾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¹⁰⁾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¹¹⁾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값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 칠십인 역, 나의 2) 구원이 열매 맺게 하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1~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회복시키기 위해 고레스 왕을 자신의 일꾼으로 세웁니다(1절).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귀환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4~5절). 고레스 자신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9~13절)

사로잡혀 온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질 자로 이방인(고레스)을 정하셨다는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쓸모없이 깨진 질그릇 조각과 같은 이스라엘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잔흙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여져야 할 존재였습니다(9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행 4:12).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Q.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따릅니까?

다른 하나님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14~19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를 역사 가운데서 증명하셨습니다(14~17절).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도 입증됩니다(18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확미하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정직한 말씀입니다(19절).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20~2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22절).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안에서만 '구원의 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24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24절). 이 구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Q.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Q.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¹벨은 엮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²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엮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³야곱의 집아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⁴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라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⁵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⁶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자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엮드려 경배하며 ⁷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치소에 두면 그것에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⁸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⁹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¹⁰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¹¹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¹²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¹³내가 나의 공의를 가감케 할 것인즉 그것이 필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게 들을지이다(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1~2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3~4절).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 1:4~5).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시행하리라(8~13절)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분명히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Q.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Q. 하나님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첫째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타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¹ “땃 돌을 가지고 각루를 깔고 너울을 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²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³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⁴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⁵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매우며”⁶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차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⁷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 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⁸ “내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⁹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¹⁰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¹¹ “이제 너는 절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고도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¹²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¹³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1) 술법으로 그것을 물리칠 줄을 알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애(1~7절)

바벨론이 한때 누렸던 영화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과 같았지만, 그들의 패망은 주저앉아 우는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1절). 바벨론은 창녀처럼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강을 건너는 여인으로 비유됩니다(2~3절). 이 비유는 바벨론이 당할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런 수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4절).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사람들이 아무라 강하게 보여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재현될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8~15절)

바벨론은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력 부와 군사력, 정치와 외교적 정책에서 그들과 경쟁하거나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8절). 또 학식을 두루 갖추고 천문과 지리에 능한 학자들도 많았습니다(9절).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14절).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1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배경만 믿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Q.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테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행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 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1) 풀무 불로 시련하였노라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1~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1절).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라는 말씀이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4절).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패역함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만큼 고질적이고 뿌리 깊었습니다(8절).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멸절되지 않게 하셨습니다(9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12~22절)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역사의 주아심을 강조하십니다(12~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의 기쁨 부음을 받은 사랑하는 이방인(고레스)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14~1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12, 14, 1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버리지 못한 완고함이 있습니까?

Q. 예수님만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진리를 매일 듣고 있습니까?

구원의 날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¹⁾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아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²⁾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³⁾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배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⁵⁾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옥중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땀겨고 모든 햇빛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아꼐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⁶⁾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돈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⁷⁾ 하늘이어 노래하라 땅이어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1) 땅

나의 구원을 배풀어서(1~7절)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하셔서 존귀하게 여긴 자입니다. 그는 장수의 손에 들린 칼과 화살처럼 대적을 쳐부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1~3절).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남은 백성을 귀환 시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입니다(4~5절).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방의 빛이 됩니다(6절). 이 새로운 임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이든간에 이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에(8~13절)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개신 군대의 행렬처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8절). 죄의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골 1:13~14).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어 구원을 소식을 듣게 된 사람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11~12절). 그 때에 세상 끝까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사방에서 돌아올 것입니다(13절). 지금도 모든 족속과 열방이 이 구원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속히 전해져야 합니다.

Q. 구원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Q.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머니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¹⁾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베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²⁾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뱃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³⁾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듯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들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⁵⁾ 보라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햇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1~3절)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1절).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포한 것처럼,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식을 빚쟁이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불평했습니다(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내준 일도, 자기 백성을 팔아버릴 만큼 무능력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2절).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2~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4~11절)

사람들의 불평과는 대조적으로 온갖 조롱과 꾀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4~6절). 그는 여호와와 변호를 신뢰하며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욕과 수치를 이겨냅니다(7~8절). 그는 자신을 향한 무수한 정죄의 소리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잔인한 말과 행동으로 그를 대적했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9절). 성경은 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Q. 사탄이 정죄할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Q.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과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㉒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㉓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1)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㉕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㉖ 옷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솜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㉗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2)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㉘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㉙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 그와 같이 2) 히, 바다의 큰 짐승

그 사막을 에덴 같게(1~3절)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이 볼 때, 자신의 영혼이 죄로 인해 황폐한 사막과 광야 같아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손을 대시면 사막이 에덴처럼, 광야가 여호와와 동산처럼 변해듯이 바뀌게 됩니다(3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진리를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1절). 이 '의'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의'가 되게 하셔서 이 '의'를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4~11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때를 바라보라고 촉구하십니다(4절). 그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7~8절).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므로 주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능력이 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9~11절).

Q. 구원받은 자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Q.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깽지어다

181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82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83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84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85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댔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186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에루살렘이여 깽지어다 깽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결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187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188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189 누가 너를 위로하랴 190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잉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19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192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결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193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 하. 그 2) 하.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너희를 위로하는 자(12~16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12절). 하나님은 '풀 같이 사라질 사람'에게 겁먹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13절).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만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이며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는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16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어설지여다(17~23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자 유다의 백성은 술 취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옛 명성은 사라지고 정복자들의 발에 짓밟힌 신세가 되어 굴욕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는 깨어나라고 촉구하십니다(17, 21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엡 5:14).

Q.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Q. 살면서 무엇 때문에 좌절합니까?

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라”¹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²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³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⁵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⁶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⁷ 네 파수꾼들의 소리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보다⁸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⁹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¹⁰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옴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¹¹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라¹² 보라 내 종이¹³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러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¹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¹⁵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¹⁶ 그가¹⁷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1) 줄이 풀렸도다 2) 지혜롭게 행하리니 3) 히, 네게 대하여 4) 열방에 뿌릴 것

돈 없이 속량되리라(1~6절)

예루살렘은 옷이 벗겨진 채 수치를 당하는 여인처럼 넘어져 일어날 기운조차 없습니다(1절). 하지만 목에 줄이 묶인 포로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2~3절). 이로 인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명성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2절).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3절).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7~15절)

하나님은 여호와와 특별한 종을 소개합니다(13~15절). 그 종은 형편없이 낮아진 후에 매우 높아지고 존귀하게 됩니다(13절). 그의 낮아짐과 높아짐의 간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놀라게 됩니다(14~15절). 이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히 12:2).

Q. 구원의 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Q.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과 내 삶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그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는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람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가 보기에(1~6절)

이사야 53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2절). 사람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터지고 창에 옆구리가 찢려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5절).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4, 6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잠잠한 양 같이(7~15절)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극악무도한 죄수처럼 심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7절).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며 '제사장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요 1:29).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와 목적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Q.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Q.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외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큰 공홀로 너를 모을 것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¹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이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이다² 이는 네가 죄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³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⁵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⁶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공홀로 너를 모을 것이요⁷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공홀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⁸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⁹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홀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둘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¹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적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¹¹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 교혼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¹²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¹³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¹⁴ 보라 숲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¹⁵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적을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와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 제자가 될 것이니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1~10절)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은 자식도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1절).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된 성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남편이나 자식도 없고 해산할 능력도 없던 여인과 같았던 황폐한 성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됩니다(2~3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기간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음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4~8절).

여호와와 종들의 기쁨이요(11~17절)

다시 적들이 공격해 와 사람들을 살육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로 건축하실 것이라 선포합니다(11~12절). 새로 건축될 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들은 요한계시록 21:10, 18~21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성,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빌 3:20).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Q.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Q.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이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¹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고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1)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2) 하 그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예배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새 성전의 단에서 번제와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7~8절).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막 11:17).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9~12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파수꾼과 목자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9~10절). 이들은 짚어서 양 떼에게 위험을 경고해 주는 개만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켜 사육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11절).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의 참 목자를 고대하도록 했습니다. 창자 오실 그분은 자신의 양을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

Q.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Q.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듣고서 돌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1) 소제를

의인이 죽을지라도(1~13절)

사회가 패역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합니다(1~2절).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는 거짓 종교가 넘칩니다(3절).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열을 올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갖 더러운 우상숭배와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행하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4~5절).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로 인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11~13절).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의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14~21절)

패역한 족속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볼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벗어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끝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고쳐 주셨습니다(18~19절). 이로 인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Q.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습니까?

Q.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날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씀이니라

1)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2) 가물 때에도 3) 그

보라(1~12절)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야 했습니다(1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물질적 번영으로 갚아주기만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할 때에도 드러났습니다(4~12절).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외식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13~14절)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날조차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와의 성일에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주일로 발전했습니다. 이 날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마 12:8). 따라서 이 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Q.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Q. 주일을 거룩하고 즐겁게 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스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¹여호와와 그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²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³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라 ⁴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⁵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밝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⁶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⁷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⁸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⁹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하므로 ¹⁰우리가 맹인 같이 답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¹¹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¹²우리가 곱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¹³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¹⁴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¹⁵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앞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¹⁶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¹⁷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¹⁸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¹⁹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에 겹옷으로 삼으시고 ²⁰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²¹서쪽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 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²²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²³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광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우리는 어두운 데 처하여 죽은 자 2) 중재

오직 너희의 죄악이(1~14절)

우리에게 있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1~2절). 이 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의 원천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온 몸으로 죄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3~4절). 이러한 범죄의 결과는 독사의 알을 품은 것같이 치명적입니다(4~5절). 또 거미줄로 옷을 지어 몸을 가리려는 것처럼 어리석습니다(6절). 그런데도 인간은 이 죄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7절).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며 인간은 그 아래에서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15~21절)

만일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되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십니다(16절). 이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로 없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보응도 구속자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Q.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Q.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까?

여호와와의 성읍이라

¹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²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³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⁴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⁵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⁶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⁷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⁸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⁹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¹⁰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스시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올려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¹¹내가 너를 ¹²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¹³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¹⁴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¹⁵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전멸되리라 ¹⁶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돌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¹⁷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¹⁸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¹⁹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²⁰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라 ²¹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²²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께서 네 영광이 되리니 ²³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²⁴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²⁵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 아름다운 집을 아름답게 하리라 2) 히, 그 3) 아름답게

사방을 보라(1~14절)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은 사방에서 승리한 군대처럼 엄청난 재물을 갖고 돌아옵니다(4~5절). 멀리 인도양에 접해 있는 아라비아 남부의 스바의 보화와 미디안과 게달의 가축, 서쪽의 다시스로부터 해로를 통해 온, 금이 들어옵니다(6~9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시 중건되어 이전과는 다른 영원한 승리자의 성이 될 것입니다(14절). 따라서 이 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진멸되고(12절), 이 성을 대적할 자가 더 이상 없으므로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게 됩니다(11절). 이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라니(15~22절)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성은 세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유한하지 않고 분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에 임재하심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 빛조차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없고(20절), 찬송과 공의와 화평이 끊이지 않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고 선지자는 밝힙니다(22절).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Q.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Q. 주님의 임재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와의 영이

“주 여호와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¹⁾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²⁾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름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³⁾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치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⁴⁾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⁵⁾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⁶⁾ “그들의 자손을 못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⁷⁾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⁸⁾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⁹⁾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돌게 할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1) 겸비한 자 2) 히. 제사장의 관

기름을 부으새(1~3절)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라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 특별한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의 포로 된 자들이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종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눅 4:16~19). 예수님은 구세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4~11절)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10절) 그리스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그 모습은 결혼 예복을 입은 아리따운 신부의 자태에 비유됩니다(10절).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계 21:2, 9). 결혼을 앞둔 신부가 순결을 지키듯,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Q.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Q.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역모임 · 소그룹
성경공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39)

11월 2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 소망의 빛이 있다면 누가 그 빛을 비추어 줄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에 영원한 왕이 임하셔서 통치하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40:18~31을 읽으십시오.

1. 본문에서 우상의 특징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18~20절)
2.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22~26절)
3.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30~31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은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26절)라는 이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결코 쇠하지 않으며,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젊고 힘이 넘쳐도 세월이 지나면 그 육체가 낡아져 낙심하게 되지만(29~30절 고후 4:16),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31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세상으로

1.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어떤 새 힘을 주십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9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손으로 지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은혜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밑줄 친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어디입니까?(절과 절)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44:1~28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1~2절)
2.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6절)
3.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까?(24~28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신 7:8).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으로 선택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후손에게 부어 메시아를 보게 하셨으며, 그들을 시냇가의 버들처럼 소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3~4절).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 하리라' (21절)라고 선언하시며,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셨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22절). 이 모든 계획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2.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어느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16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야곱의 후손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무적의 용사요, 사나운 정복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신다고 선포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이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원하셨습니다(26절).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49:14~26을 읽으십시오.

1.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습니까?(14~15절)
2.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던 민족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22~23절)
3.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24~25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패망하여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고 자녀들마저 빼앗긴 여자에 비유되었습니다(14~15절).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폐한 불모지처럼 버려진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판단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16절).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어려움 없이 재건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17절의 '자녀들'은 '건축자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사들려 귀환하는 포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건축자들의 이미지는 예루살렘 성 재건을 사들려 마치는 목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쁜 장식과 보석으로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18절). 나아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9절).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마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갑자기 임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듯 한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세상으로

1.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거나 버리셨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2.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23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확실한 은혜이니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종에게 죄의 짐을 담당시켜서(53장)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유적으로 잘 표현된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절)

하나님이 새로이 세우실 영원한 언약으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절)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55:1~13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1절)
2.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6~7절)
3.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입니까?(8~9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갈급한 영혼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영적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의 은혜만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 이 복음은 온 세계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12~13절).

■ 세상으로

1. 값없이, 돈 없이, 선행 없이 누릴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2.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1월 30일

주일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공부
(G.B.S.)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 신앙고백(사도신경)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한 후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성읍으로 삼으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온의 새로운 모습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말씀 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드러낸 구절은 어디입니까? (절)

■ 말씀으로

먼저 이사야 62:1~12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이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1~2절)
2.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4~5절)
3. 유다 민족이 다시 받게 되는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12절)
4.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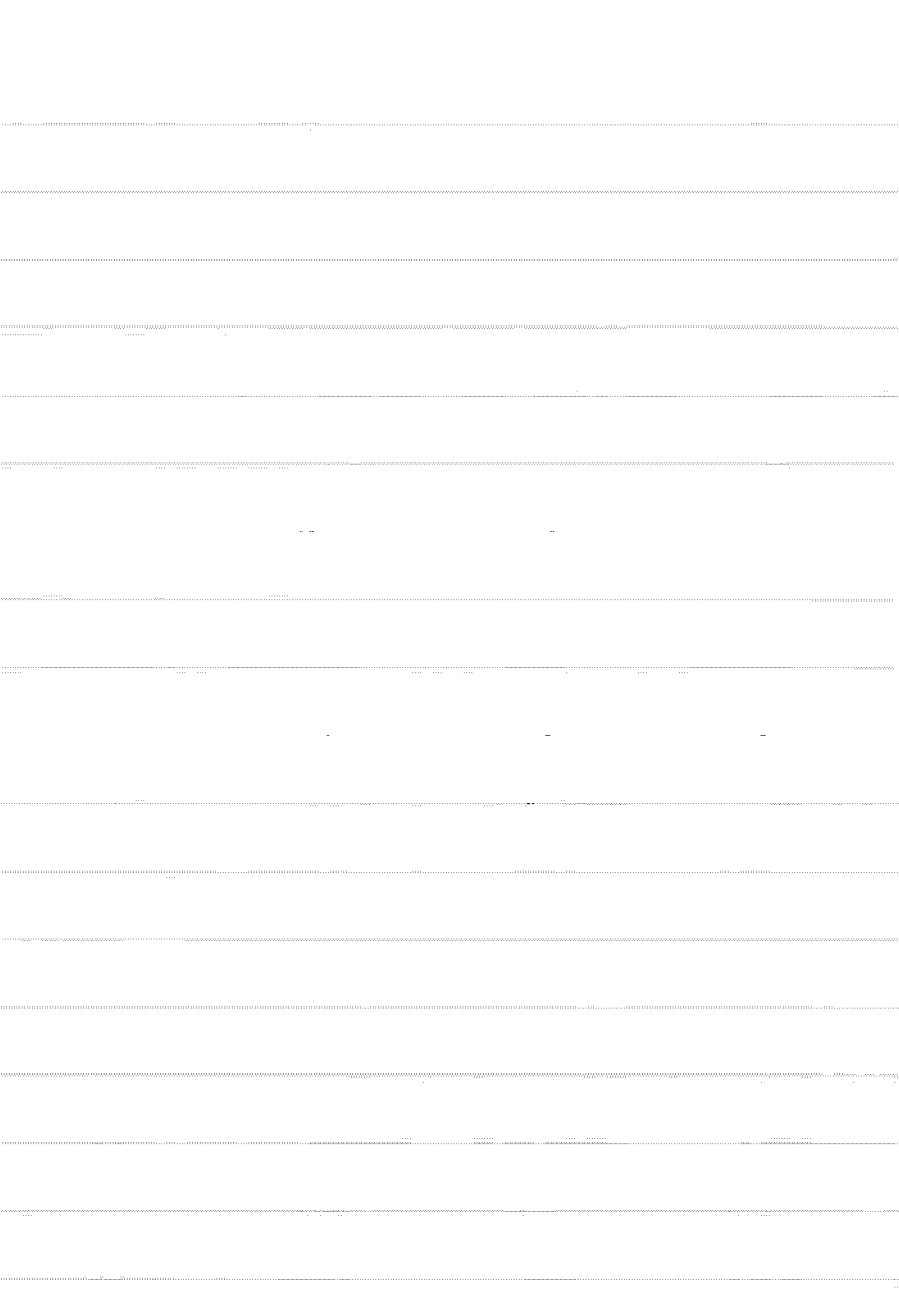
■ 십자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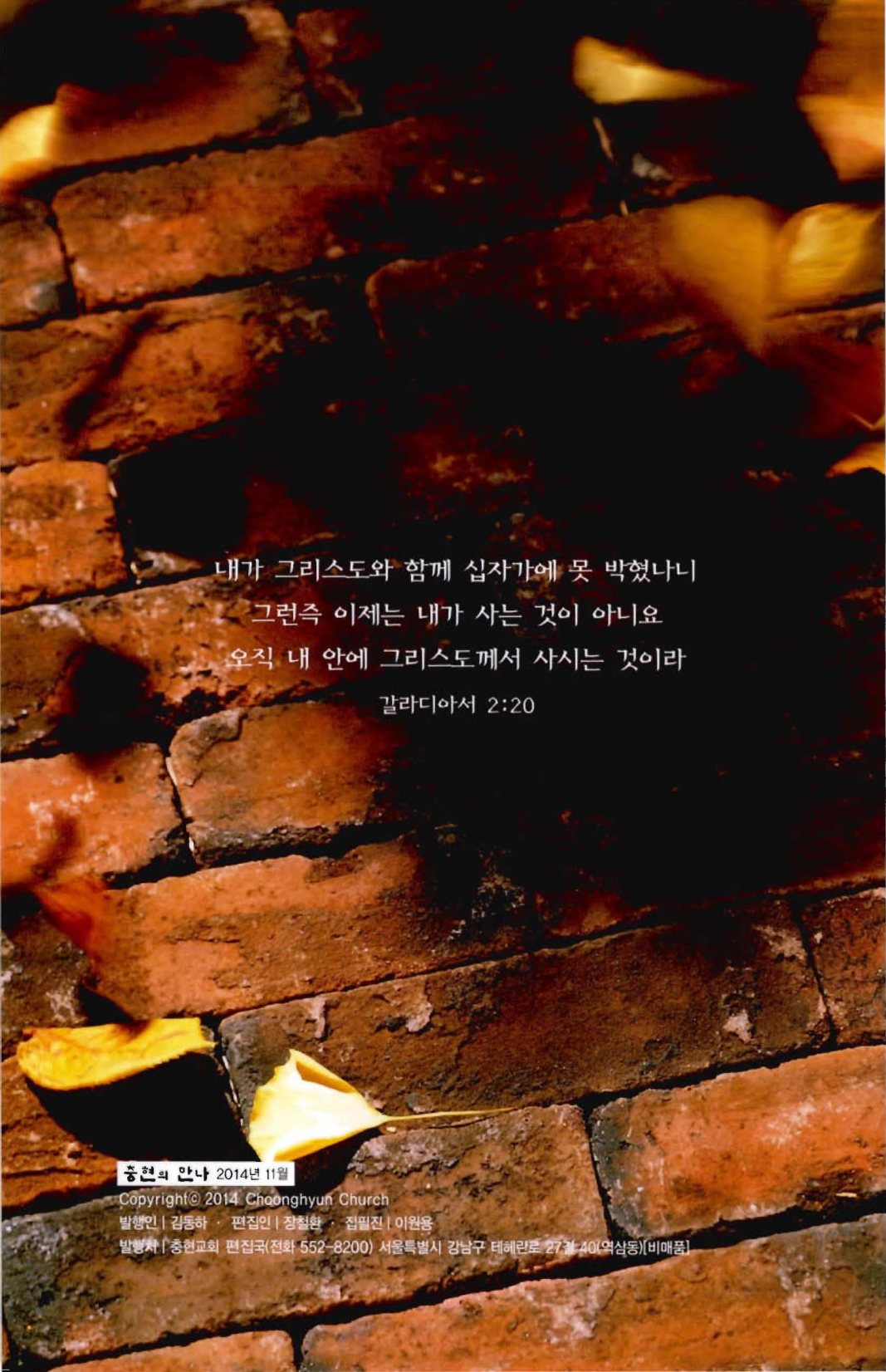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온의 의가 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1절). 그 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손에 있는 먼류관처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옛적에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 황무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 되어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향해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11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을 통해 새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새 백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은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헴시바'(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뵤랴'(결혼한 여자)라고 칭하십니다.

■ 세상으로

1.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징표로 받은 새 이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 합심기도 찬송 후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충현의 만나 2014년 11월

Copyright© 2014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동하 · 편집인 | 장철환 · 집필진 | 이원용

발행처 | 충현교회 편집국(전화 552-8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7길 40(역삼동)[비매품]